

Deloitte Insights

October 2025



딜로이트 글로벌 건설업 트렌드 건설업의 스마트 혁신과 다각화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서문 글로벌 건설업, 단기 불확실성에도 장기 성장세 전망	03
01 글로벌 건설업 지역별 분석	05
1. 미주 - 북미의 인프라 현대화와 중남미의 성장 잠재력	05
2. 유럽 - 둔화된 성장세 속 인프라 투자 전환점	06
3. 아시아태평양 - 선진국 둔화 vs. 신흥국 견조한 성장 속 인프라 투자 가속화	07
4. 중동·북아프리카(MENA) - 도시화·경제 다각화가 이끄는 인프라 성장	08
02 스마트 건설: 저수익 구조를 넘어서는 전략적 전환	09
1. 입찰 및 계약 단계 - 정확성과 리스크 가시성이 관건	10
2. 설계 및 시공 단계 - 협업과 생산성, 시간·비용 관리	11
3. 운영·유지보수 단계 - 예측 기반 관리로 생애주기 효율 강화	11
※ 글로벌 '스마트 건설' 혁신 사례	12
03 글로벌 대형 건설 기업들의 다각화 전략	13
1.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 비건설 부문에서 찾는 신성장 동력	13
2. 지리적 다각화 전략 - 시장 다변화와 수익 안정성 확보	15
※ 포트폴리오 다각화 vs 지리적 다각화	17
주석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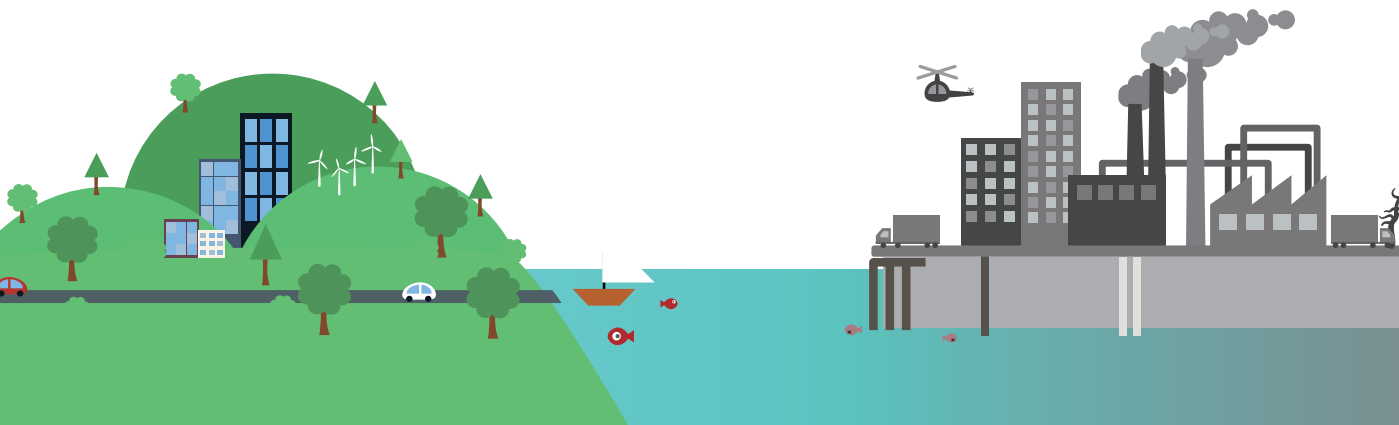
서문

글로벌 건설업, 단기 불확실성에도 장기 성장세 전망

2024년 글로벌 건설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5년에는 성장률이 2.3%까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¹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이어져,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5%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²

세계 인구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해지면서, 향후 수년간 교통·수자원·에너지·통신·제조 등 건설 부문 전반에서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건설업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통화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며 성장 기대는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 ✓ **인플레이션**은 단기 및 중기 건설업 전망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건설업은 장기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계약 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률은 2025년 4.2%, 2026년 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보다 물가 목표치에 더 빨리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³ 여전히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 **금리**는 건설 산업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자본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금융 여건과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2024년 이후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기 부양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으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따라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건설·인프라 투자를 되살릴 전망이다.
- ✓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불확실성**은 전 세계 건설업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련된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비용 상승, 공급망 교란, 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투자자들이 더욱 까다로워져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⁴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분쟁**은 글로벌 건설 투자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세계 불안정성 공포를 심화시켜 투자 환경을 더욱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은 여전히 회복력이 강하다. 글로벌 건설 시장 규모는 2024년 11조3,900억 달러에서 2030년 16조1,1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5.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⁵ 특히 향후 10년간 주목할 기회는 다음과 같다.

- ✔ **인프라 투자**는 향후 글로벌 건설 투자의 선도 분야로 꼽힌다. 급속한 도시화를 배경으로 교통·수자원·에너지·유틸리티 등 공공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흥국은 신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반면, 선진국은 기존 자산 업그레이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주거 건설**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도시화와 주택 부족 문제가 수요를 견인한다.
- ✔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제조업 리쇼어링(국내 회귀) 추세에 힘입어 빠른 확장이 기대된다.
- ✔ **디지털 인프라**는 데이터센터와 5G 네트워크 확산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이 직접적인 동력이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은 단기적으로 경기 변동성에 직면해 있으나 전략적 중요성과 장기 성장성은 견고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01

글로벌 건설업 지역별 분석

1. 미주 - 북미의 인프라 현대화와 중남미의 성장 잠재력

① 미국과 캐나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압력이 경제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4년 2.8%에서 2025년 1.8%, 2026년 1.7%로 계속 둔화될 전망이다.⁶ 이는 무역 불확실성, 정책 불확실성, 수요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2024년 연간 총지출 규모는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하며 GDP의 약 4.5%를 차지한다.⁷ 2020~2024년 미국 건설 시장은 연평균 7.3%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5~2029년에도 연평균 4.4%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⁸

2021년 5개년 대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인프라 현대화 노력에 큰 성과를 거뒀다. 법안이 종료되는 2026년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인프라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2025년 2월 발의된 '연방 인프라 은행법'(Federal Infrastructure Bank Act)은 공공 편익을 창출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인프라 은행 설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초당적 합의로 발의된 '전력망 통합법'(Building Integrated Grids with Inter-Regional Energy Supply Act)은 미국 전력망의 용량을 확대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의 실질 GDP는 2024년 약 1.5% 성장하는 데 그쳤다.⁹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으나 높은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로 국내 소비와 민간 투자가 부진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4%, 1.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¹⁰

캐나다 건설 산업은 에너지·교통·산업·주거 부문의 발전에 힘입어 2025년 실질 기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6~2029년 기간에도 연평균 2.8%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¹¹

2016년 출범한 연방 인프라 계획인 '캐나다 인프라 투자 계획'(Investing in Canada Plan)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2년간 총 1,88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 계획을 통해 2025년 중반 현재까지 10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1,570억 캐나다달러가 투입됐다. 남은 310억 캐나다달러는 교통, 친환경 인프라, 사회 인프라 등 핵심 우선 분야에 배분될 예정이다.¹²



②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LAC)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경제는 현재 다소 느리고 불균등한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약 2.4% 성장했으나 2025년에는 2.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 들어서야 소폭 회복이 전망된다. 2024년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 GDP가 증가했으나,¹³ 여타 신흥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며,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중남미 건설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7,09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9,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5%의 성장률에 해당한다.¹⁴ 이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교통망 확충, 청정에너지 및 전력망 강화, 해양 및 디지털 연결성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다자개발은행(MDB)과 민간합작투자(PPP)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만성적인 인프라 투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내 GDP의 2.4%를 인프라 투자에 배정해야 하며,¹⁵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투자 규모가 1%포인트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건설 시장이자 주요 투자 유입국으로, 지난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수조 헤알(BRL)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 회랑, 에너지 인프라(발전 및 송전), 도시 계획과 주택, 디지털 경쟁력 강화, 친환경 물류 등 다방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 유럽 - 둔화된 성장세 속 인프라 투자 전환점

유럽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GDP는 1.8% 증가했으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4%, 1.6%로 둔화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2024년 스페인·크로아티아·덴마크가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독일은 0.2% 역성장을 기록했다. 영국의 2025~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1%, 1.4%로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¹⁶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갈등 해소, 목표 중심 개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건설 시장은 2023년 위축된 데 이어 2024년 위축세가 더 심화됐다. 이에 따라 유럽 건설산업 분석기관 연합체인 유로컨스트럭트(EUROCONSTRUCT)에 가입한 19개국의 건설 활동은 2024년 2.1% 줄었으며, 단 4개국만이 건설 생산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2025년을 기점으로 부정적 흐름이 반전돼 향후 수년간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8월 종료되는 EU의 '차세대 EU 기금'(NGEU) 계획은 유럽 전역에서 환경 지속가능성, 디지털, 사회, 인프라 부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구조 개혁과 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공식적인 연장 계획은 없지만, EU는 교통·에너지·디지털·친환경 인프라 등 핵심 분야 투자를 이어갈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현재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국가 인프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우선순위는 국방, 에너지 안보, 대규모 교통망 업그레이드, 지역 철도 투자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와 AI 분야에 투자를 대규모로 확대하고, 녹색 송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망을 강화하고 있다.

3. 아시아태평양 - 선진국 둔화 vs. 신흥국 견조한 성장 속 인프라 투자 가속화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의 전체 GDP 성장률은 2024년 4.6%에서 2025년 3.9%로 하락한 뒤 2026년에는 4.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2024~2026년 선진국은 1.4%를 넘지 못하는 반면, 신흥국은 4.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GDP가 감소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유일하며, 2025~2026년에는 역내 모든 국가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¹⁷



한국

한국 건설 산업은 2024년 위축세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실질 기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2029년 기간에는 연평균 2.7% 성장률을 회복할 전망이다.¹⁸ 향후 5년간 한국은 디지털화, 지속가능 에너지, 교통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프로그램으로는 지하철 및 고속철도 확충, 공공주택 확대, 스마트 그리드 업그레이드가 포함된다.



중국

중국 건설업은 2025년 실질 기준 3.2% 성장하고, 2026~2029년에는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¹⁹ 2026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은 △서부 교통 회랑 확충 △에너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에코시티 개발 △농촌 디지털·물류 인프라 강화 △재생에너지와 탄소 규제를 통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공식 승인 시점은 2026년 3월로 예상된다.



일본

일본 건설업은 2025년 실질 기준 1.6% 성장하고, 2025~2029년 동안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⁰ 일본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산업 인프라 분야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교통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민관합작투자(PPP)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AI 기반 인프라가 전략적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인도 건설업은 2020~2024년 연평균 14.2%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2025~2029년에도 8.8%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2029년 말까지 시장 규모는 2024년 22조7,700억 루피(INR)에서 약 39조1,000억 루피로 확대될 전망이다.²¹ 인도 정부는 향후 5년간 △철도·도로·항만 등 연결성 △도시 교통 △디지털 확장 △재해 복원력 강화에 전략적 초점을 맞춘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택 부문이 핵심 축으로, 도시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중소도시(Tier II·III)에서 저렴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주택 공급 정책(PMAY, Pradhan Mantri Awas Yojana)을 확대해 3천만 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호주 건설 산업은 2025년 실질 기준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2029년에도 연평균 3%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²² 호주의 인프라 투자 파이프라인은 주로 교통-에너지 전환, 지역 연결성을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2023~2033)'을 통해 1,2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순환형 자금 파이프라인이 관리되고 있다.²³

4. 중동·북아프리카(MENA) - 도시화·경제 다각화가 이끄는 인프라 성장

MENA 지역은 2024년 1.8%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5년 2.6%, 2026년 3.4%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⁴ 다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현실화되느냐 여부는 석유 시장 정상화,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적인 지역 개혁 여부에 달려 있다.

중동 건설 산업은 2024년 기준 1,041억5,000만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5.9% 성장률이 예상된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경제 다각화 정책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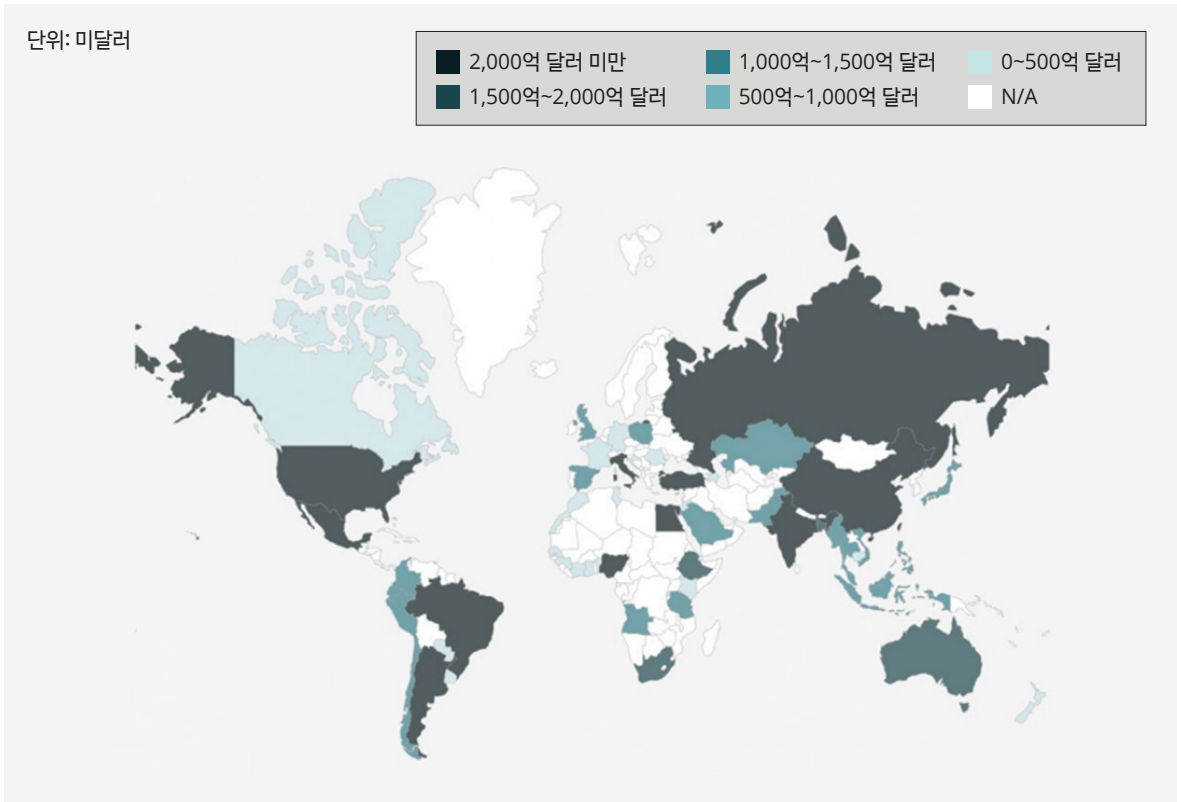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는 MENA 지역 최대 건설 시장으로, 2025~2029년 연평균 4.9%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²⁵ 특히 '비전 2030'(Vision 2030) 전략에 따라 스마트시티 개발,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육성이 핵심 기회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는 네옴(NEOM)과 키디야(Qiddiya)가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과 혁신 중심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건설 산업은 2025년에 실질 기준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2029년에도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²⁶ 투자 우선순위는 △디지털 및 AI 인프라[아부다비의 스타게이트 AI 캠퍼스(Stargate AI Campus)] △재생에너지(마스다르가 주도하는 대규모 태양광 및 배터리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두바이의 주요 도로 및 개발 계획)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두 주요 경제국으로는 이집트와 알제리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건설 시장은 2025년 550억4,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823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8.4% 성장률에 해당한다.²⁷ 이집트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이어 MENA 지역 내 세 번째로 큰 프로젝트 시장으로 부상했다.

알제리 건설 산업은 2026~2029년 연평균 4.1%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2035년까지 전력 생산의 27%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과 더불어 석유·가스 및 탄화수소 개발 투자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²⁸

그림 1. 전 세계 지역별 인프라 수요-투자 격차 전망치



출처: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 A G20 INITIATIVE(github.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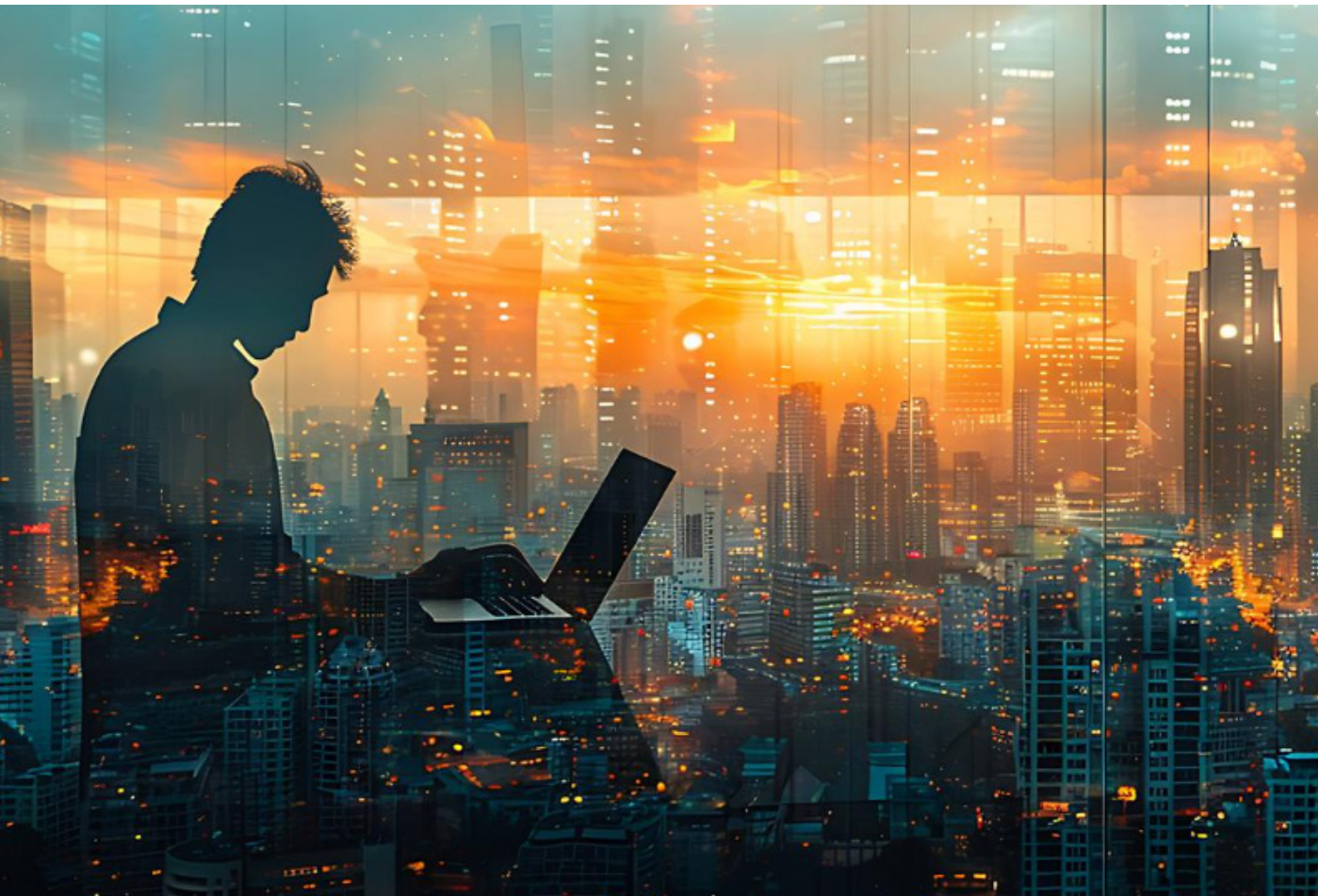
02

스마트 건설: 저수익 구조를 넘어서는 전략적 전환

유엔(UN)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⁹ 거대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도시화 가속화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촉발할 것이다. 동시에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흐름도 향후 인프라 투자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기업들이 이러한 수요 확대를 온전히 성장 기회로 활용하려면 영업이익률 개선에 나서야 한다.

건설 업계는 향후 전 세계 인프라 수요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 산업 특유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재무적 기반과 수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설 기업들은 ‘스마트 건설’(smart construction) 전환으로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한다. 스마트 건설은 단순한 운영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시공사가 더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건설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재무 전략이다. 이익률이 좁고 변동성이 큰 산업 구조 속에서 스마트 건설은 재무적 안정성과 경쟁력 차별화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5~10년간 스마트 건설은 실험적 개념에서 필수 요소로 진화했으며, 입찰·계약부터 시공, 운영·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수행 방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입찰 및 계약 단계 - 정확성과 리스크 가시성이 관건

이 단계는 프로젝트 수주를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입찰안을 준비하며, 기술적·재무적 제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범위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고, 현장 데이터 접근이 제한적이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으면 비용 산정이 부정확해지고 과소입찰로 이어질 수 있다. 고정가격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 특성상, 이익을 손실은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이 단계에서의 혁신은 주로 정확성 제고와 리스크 가시성 확보에 집중된다.

- ✔ 빌딩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면 프로젝트 범위가 불명확한 초기 단계에서도 개념적 모델링, 기본 불일치 탐지, 물량 추출 등을 통해 조기 비용 추정을 가능해 여전히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 ✔ 전통적 비용 산정은 속도가 느리고 매년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 이에 비해 AI 기반 비용 산정 플랫폼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 시장 가격 동향, 인력·생산성 지표 등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입찰 정확도를 높이고 수작업 부담을 줄이며 가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수량 산출이나 스프레드시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확률·통계 기법으로 불확실성이 큰 문제의 가능 결과를 수천~수만 번 반복 시뮬레이션 예측) 및 리스크 모델링 도구는 1990년대부터 사용됐지만, 지난 10~15년, 특히 최근 5년간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새로 등장한 기술은 아니지만, BIM 모델과 비용 산정 도구와의 통합으로 입찰 의사결정에서 점점 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 ✔ 디지털 입찰 관리 솔루션은 AI나 BIM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 규모의 복잡한 입찰에서는 대량 문서 처리, 정밀성,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입찰 문서의 준비·제출·추적을 중앙화·자동화하며, AI 기반 검토 솔루션은 입찰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문서 준수 여부를 자동 점검한다.



2. 설계 및 시공 단계 - 협업과 생산성, 시간·비용 관리

이 단계는 프로젝트 수행의 핵심 단계로, 설계가 확정되고 실제 시공이 시작된다. 입찰 단계에서 세운 가정들이 현실에서 검증되는 시기다. 설계 오류, 일정 지연, 공급망 차질과 같은 주요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적절히 가격이 산정된 프로젝트라도 수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업, 생산성, 비용·시간 통제에 혁신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 ✔ BIM은 입찰 단계에서 개념적 모델을 마련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협업형 BIM(레벨 2~3)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협업형 BIM을 활용하면 건축·구조·기계·전기(MEP) 등 모든 분야가 동일한 모델을 기반으로 작업할 수 있어 설계 충돌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작업과 의사소통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협업형 BIM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4D BIM은 시간 요소를 추가해 프로젝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뮬레이션·계획·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기존 모델을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시간 논리와 지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5D BIM은 데이터 기반 건설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4D BIM이 '언제, 어떻게' 건설할지를 보여준다면, 5D BIM은 '얼마나 비용이 들며, 공정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준다. BIM 모델에서 직접 물량을 산출하고 이를 단가와 연결해 자동화된 견적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 ✔ 공급망 관리는 전통적으로 발주 문서, 견적 요청(RFQ), 협력사 계약 등 백오피스 기능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규모·고속 프로젝트에서는 공급망 성과가 곧 수익성과 일정 확실성에 직결된다.

최신 기술은 건설사가 공급망 관리를 사후 대응형에서 사전 예측형, 데이터 기반 모델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자재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며, 조달을 일정(4D)과 예산(5D)에 연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운영·유지보수 단계 - 예측 기반 관리로 생애주기 효율 강화

장기적 단계에서는 자산 성과, 비용 효율성, 수명주기 관리가 핵심이다. 단순히 높은 비용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 데이터 부재, 계획되지 않은 유지보수가 모두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단계에서의 혁신은 예측 유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실시간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해 장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시점에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펌프, 모터, 냉난방공조(HVAC) 시스템과 같은 주요 설비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설치돼 온도, 진동, 압력 등 성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이 데이터는 지능형 플랫폼으로 전송돼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마모나 오작동의 초기 신호를 식별한다. 플랫폼은 머신러닝, 임계치 분석, 디지털 트윈 로직 등을 적용해 고장을 예측하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한다.

문제가 예측되면 작업 지시서(work order) 생성과 추적이 필요하다. 이때 전산화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CMMS)이 가동된다. CMMS는 일정 관리, 인력, 예비 부품, 유지보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현장 앱은 기술자·점검원·정비팀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도구다. 이들은 CMMS와 연동돼 현장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

글로벌 '스마트 건설' 혁신 사례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제 혁신을 선택이 아닌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운영·계약·재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혁신을 통합하고 있으며, 그룹별 적용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건축공정총공사(CSCEC)**는 5G, AI, IoT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해 스마트 건설 현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과 협력해 디지털 건설 국가혁신센터(National Center of Technology Innovation for Digital Construction)를 설립했다.³⁰

 **중국 철도건설공사(CRCC)**는 2025년 3월 중국 최초의 고지대 친환경 AI 훈련 허브 건설을 시작했다. 이 시설은 척박한 환경에서 AI 활용을 실험하고, 원격지·고지대의 지능형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³¹ 또한 CRCC는 첨단 건설 장비 산업기술연구소(High-end Equipment Industr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2024년 11월 25일 공식 개소해 고급 건설 장비와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³²

 **프랑스 방시(VINCI)**는 단순히 디지털 툴을 도입을 넘어, 설계·시공·운영 전 단계에 걸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혁신 허브 '레오나르드'(Leonard)를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AI·디지털트윈·자동화·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³³

 **스웨덴 스칸스카(Skanska)**는 2024년 사내 전용 AI 챗봇 '사이드킥'(Sidekick)을 출시했다. 해당 툴은 보안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돼 데이터 보호와 무결성을 보장하며, 직원들이 프로젝트 데이터와 조직 내 지식을 신속히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³⁴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는 마드리드에 건설기술센터(Construction Technology Center)를 설립했다. 해당 센터는 디지털·지속가능 솔루션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개발(R&D) 허브로, 인프라의 설계·시공·유지보수 방식을 혁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³⁵

 **미국 풀티그룹(PulteGroup)**은 호주의 로보틱스 기업 FRB와 협력해 AI 기반 건설 로봇을 시범 적용했으며, 하루 만에 구조벽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을 플로리다 배백 랜치(Babcock Ranch)의 테라워크(TerraWalk) 단지에서 선보였다.³⁶

 **미국 레나(Lennar)**는 혁신 부문 자회사 렌엑스(LENX)를 통해 3D 프린팅, 스마트홈, 지속가능 에너지 솔루션 등에 투자하며 주택 건설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³⁷

 **일본 다이와하우스(Daiwa House)**는 다년간 BIM을 활용해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비효율성을 줄이며 운영 효율성을 높여왔다. 자체 플랫폼 D's BIM을 통해 부서와 프로젝트 간 디지털 협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도쿄와 오사카에 BIM 교육센터를 설립해 인력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³⁸

이처럼 글로벌 건설사들이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나, 시스템 통합의 복잡성, 데이터 품질 문제, 확장성, 변화 관리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혁신을 조기에 수용한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과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03

글로벌 대형 건설 기업들의 다각화 전략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지리적 다각화를 결합하면 지리적·산업별 리스크를 상쇄해 수익을 안정화할 수 있다. 2024년 글로벌 건설사들의 비(非)건설 매출은 전체의 25.5%, 해외 매출은 21.3%를 차지했다. 특히 유럽 기업들이 다각화·국제화 순위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반면, 중국·미국 기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1.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 비건설 부문에서 찾는 신성장 동력

수십 년간 주요 기업들은 부동산, 산업 서비스, 인프라 운영권(concession) 등 비건설 분야로 확장해 왔다. 이들 부문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전통적 건설 활동의 변동성을 완화한다. 다만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해 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따른다. 2024년 상위 30대 글로벌 건설사들의 매출 중 비건설 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25.5%에 달한 반면, 31~100위 기업군은 이보다 적은 비중을 기록했다. 유럽 기업들은 평균 43.7%를 비건설 매출에서 올린 반면, 아시아 기업은 22.9%, 미국 기업은 7.6%에 불과했다.

① 부동산

부동산은 전통적 건설업(특히 주택 건설)과 부동산 사업 간의 명확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건설사들이 가장 흔히 선택하는 다각화 사업으로 꼽힌다.

- ✔ **미국** DR호턴(D.R. Horton), 레나, 풀티그룹이 선두 주자다. 이들은 토지 매입·개발부터 주택 공급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기업별로 DR호턴은 2023년 8만2,917호에서 2024년 8만9,690호로 공급량을 늘렸으나, 평균 분양가는 4% 하락했다. 레나 또한 7만3,087호에서 8만210호로 확대했으나, 평균 분양가는 42만 3,000달러로 떨어졌다. 반면 풀티그룹은 2024년 3만1,219호를 공급하며 고급주택에 집중해 평균 분양가를 2% 높였다.
- ✔ **일본**에서는 다이와하우스, 세키스이하우스(Sekisui House), 스미토모 임업(Sumitomo Forestry)이 두각을 나타냈다. 다이와하우스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세키스이는 고품질 단독주택을, 스미토모는 고급 도심형 콘도·상업용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세키스이는 2024년 미국 주택업체 MDC홀딩스(M.D.C. Holdings)를 인수하며 미국 사업을 확장했다.
- ✔ **중국**의 대형 인프라 기업들도 부동산 개발을 병행한다.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EEC)는 부동산 개발에서만 588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 ✔ **유럽**에서는 스칸스카가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개발에서 전체 매출의 11%를 올리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부이그(Bouygues)와 방시도 각각 16억 달러,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② 산업 서비스

- ✓ 유럽에서는 방시, 부이그, 에파주(Eiffage)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방시 에너지(VINCI Energy)와 코브라IS(Cobra IS)는 29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부이그가 인수한 에퀼스(Equans)는 에너지 전환 서비스에 집중하며 매출을 2.2% 늘렸다. 에파주는 16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에파주 에너지(Eiffage Energy)는 매출 21.3%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달성했다.
- ✓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라르센앤드투브로(L&T)가 7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중국교통건설은 해외 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설계 사업에서 70억 달러 이상을 올렸다.
- ✓ 미국의 플루어(Fluor)는 에너지 솔루션에서 60억 달러, 미션 솔루션에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③ 인프라 운영권

- ✓ 방시는 유럽 내 대표 주자로, 고속도로(4,000km)와 공항(14개국 70여 개)을 운영하며 12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 ✓ 스페인의 ACS는 유료도로 관리 기업 아베르티스(Abertis), 위성 사업자 이리듐(Iridium) 등을 통해 미주·아시아·유럽에서 7,800km 이상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 ✓ 에파주, 오스트리아 스트라백(Strabag),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 등은 고속도로·공항 운영 및 해수담수화 시설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④ 기타 사업

- ✓ 부이그는 미디어·통신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024년 대형 방송국 TF1을 통해 26억 달러, 부이그 텔레콤(Bouygues Telecom)을 통해 85억 달러의 매출을 각각 거뒀다.
- ✓ 아시아에서는 인도 L&T가 금융서비스에서 54억 달러 매출을 거뒀고, 한국 삼성물산은 무역·패션·리조트·바이오파마까지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미국 주택 건설사들은 주택금융, 타이틀, 보험 서비스 등 인접 사업으로 확장했다. 대표적으로 DR호턴은 2024년 모기지 대출 24억 달러를 발행했다.

2. 지리적 다각화 전략 - 시장 다변화와 수익 안정성 확보

지리적 다각화는 내수 의존도를 줄이고, 대규모 프로젝트 접근성과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치·법률·환율 리스크와 문화적 장벽은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상위 30대 건설사들이 2024년 기록한 해외 매출은 3,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p 증가했다. 총매출 중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 기업들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 기업은 33%, 미국 기업은 5%에 그쳤다.

① 유럽

2024년 글로벌 건설사들의 유럽 지역 매출은 879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방시, 부이그, 스트라백이 유럽 내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 ✔ 방시는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에서 28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영국(73억 달러), 독일(60억 달러), 스페인(41억 달러) 등이 핵심 시장이다. 공항 운영권, 통신 인프라 구축, 고속도로 유지보수, 대형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가 주요 사업이다.
- ✔ 부이그는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에서 183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 독일·체코에서는 교통 인프라 건설·유지보수에, 스페인·네덜란드에서는 에너지 솔루션에 각각 주력하고 있다.
- ✔ 스트라백은 오스트리아 외 유럽에서 15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독일 시장(86억 달러 매출, 148억 달러 수주잔고)에 크게 의존한다. 독일 내 전력망 확충 등 에너지 전환 투자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폴란드·영국·체코에도 진출해 있다.

② 미주지역

2024년 미주 지역에서는 유럽계 건설사가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한국·인도 기업도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했다.

- ✔ 스페인 ACS는 미주 지역 최대 시공사로 279억 달러 매출(전체 매출의 62%)을 기록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형 공항, 댐, 고속도로, 반도체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북미 수주잔고는 517억 달러에 달한다.
- ✔ 방시는 미주 지역에서 105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으며, 브라질 공항 운영권, 송전선 건설·운영, 태양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 덴버 순환도로 유료 구간 운영권(12억 달러)을 인수하며 미주 지역 사업을 확장했다.
- ✔ 부이그는 미주 지역에서 8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중 캐나다·미국 도로 건설이 44억 달러를 차지했다.
- ✔ 이 외 스미토모 임업(61억 달러)과 삼성물산(42억 달러)도 미주 지역 주요 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③ 중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이 지역에서는 ACS, 사이팸(Saipem), L&T가 선두권을 형성했으며, 삼성물산과 방시가 뒤를 이었다.

- ✓ ACS는 전체 매출의 24%인 109억 달러를 이 지역에서 기록했다. 주로 호주에서 자회사 CIMIC을 통해 활동하며, 2024년에는 퀸즐랜드 웨스턴다운스배터리(Western Downs Battery) 2단계 건설과 빅토리아 서버번레일루프(Suburban Rail Loop) 터널 구간 건설을 수주했다.
- ✓ 사이팸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68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해양 EPC 및 해저 석유·가스·LNG 인프라 계약에 특화되어 있으며, 주요 고객은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다.
- ✓ 인도 L&T는 카타르, UAE, 오만 등 중동에서 전통적 에너지 플랜트의 EPC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4년 매출은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 ✓ 삼성물산과 방시도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다. 2024년에는 각각 51억 달러, 44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④ 아프리카

2024년 글로벌 건설사들의 아프리카 지역 매출은 12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역의 주도 기업은 사이팸이며, 현대건설, 부이그, 방시 등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 ✓ 사이팸은 아프리카에서 4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자산 기반 서비스, 에너지 운송, 해상 시추 등 주요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전략을 전개하며 건설·인프라·시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 현대건설은 아프리카 여러 시장에서 인프라, 전력, 수자원, 산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29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
- ✓ 부이그와 방시는 각각 19억 달러, 1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아프리카는 프랑스의 상업·지정학적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시장으로, 성장 기회와 문화적 연계성, 장기적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부이그는 바이마로(Bymaro) 브랜드를 통해 대형 토목·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방시는 아프리카 전담 자회사 소제아-사통(Sogea-Satom)을 통해 사업을 전개한다.
- ✓ 중국 기업들은 지역별 해외 매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다. 통신 인프라 확대와 함께 건설, 에너지, 광업 부문에서의 투자 증가가 국제 사업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중국 해외 건설 시장 중 최대 규모를 차지한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vs 지리적 다각화

일반적으로 전통적 건설 활동에 운영권, 산업 서비스, 부동산과 같은 비건설 사업을 결합할 때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자본 소요가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리적 다각화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증시에서 장부가치 대비 할인 거래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순수 건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4년 3.3%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국제 복합 대기업은 평균 8.8%를 기록했다. 주택 건설사는 13.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순이익률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택 건설사(9.8%)와 복합 대기업(5.5%)이 건설 그룹(2.8%)보다 우위에 있었다.
-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비건설 활동은 초기 자본투자가 크기 때문에 높은 부채비율을 수반한다. 2024년 다각화된 글로벌 건설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5%였다. 건설 그룹은 평균 41.2%의 순부채비율을 보였지만, 중국 기업(주로 내수 기반 시공사)을 제외하면 순현금 포지션을 유지했다. 이는 자본지출이 낮은 순수 건설업의 특성과 일치한다.
- 시가총액 기준 밸류에이션에서는 건설 그룹이 장부가치 대비 0.4배로 할인 거래되는 반면, 복합 대기업(1.7배), 주택 건설사(1.5배)는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



주석

1. Global Data, "Construction Market Size, Trends and Growth Forecasts by Regions and countries, 2025-2029 (Q1 2025)," March 2025.
2. Next Move Strategy Consulting, "Construction Market by Type (Renovation and New Construction), by Sector (Real Estate and Others), by Construction Method (Traditional Construction, Prefabricated/Modular Construction, 3D Printed Construction, Green/Sustainable Construction), and by Type of Contractor (Large Contractor, Medium Contractor and Small Contractor) - Global Industry Trends and Forecast, 2025-2030," June 2025.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25.
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5. Next Move Strategy Consulting, "Construction Market by Type (Renovation and New Construction), by Sector (Real Estate and Others), by Construction Method (Traditional Construction, Prefabricated/Modular Construction, 3D Printed Construction, Green/Sustainable Construction), and by Type of Contractor (Large Contractor, Medium Contractor and Small Contractor) - Global Industry Trends and Forecast, 2025-2030," June 2025.
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7. Jonathan Jones, "U.S. Construction Industry Fact, Stat & Trends," Construction Coverage, June 2025.
8. ConsTrack360, "United States Construction Industry Databook Series – Market Size & Forecast by Value and Volume, Q1 2025 Update," March 2025.
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1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11. Global Data, "Canada Construction Market Size, Trend Analysis by Sector,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 to 2029 – Q1 2025," March 2025.
12. Global Data, "Canada Construction Market Size, Trend Analysis by Sector,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 to 2029 – Q1 2025," March 2025.
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14. Mordor Intelligence, "Latin America Construction Industry Size & Share Analysis – Growth Trends & Forecasts (2025-2030)," May 2025.
15. Mordor Intelligence, "Latin America Construction Industry Size & Share Analysis – Growth Trends & Forecasts (2025-2030)," May 2025.
1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1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18. Global Data, "South Korea Construction Market Size, Trends, and Forecasts by Sector - Commerc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Energy and Utilities, Institutional and Residential Market Analysis to 2029 (Q1 2025)," March 2025.
19. Global Data, "China Construction Market Size, Trends, and Forecasts by Sector – Commerc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Energy and Utilities, Institutional and Residential Market Analysis to 2029 (Q2 2025)," May 2025.
20. Global Data, "Japan Construction Market Size, Trends, and Forecasts by Sector – Commerc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Energy and Utilities, Institutional and Residential Market Analysis to 2029 (H1 2025)," February 2025.

21. ConsTrack360, "India Construction Industry Databook Series – Market Size & Forecast by Value and Volume, Q1 2025 Update," March 2025.
22. Global Data, "Australia Construction Market Size, Trends, and Forecasts by Sector - Commerc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Energy and Utilities, Institutional and Residential Market Analysis to 2029 (Q1 2025)," March 2025.
23. Global Data, "Australia Construction Market Size, Trends, and Forecasts by Sector - Commerc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Energy and Utilities, Institutional and Residential Market Analysis to 2029 (Q1 2025)," March 2025.
2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25. TechSci Research LLC, "Middle East Construction Market By Type (Building Construction, Heavy &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Others), By End User (Private, Public), By Sector (Commercial, Resident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By Construction Type (New Construction, Repair & Maintenance), By Country, Competition, Forecast and Opportunities, 2020-2030F," May 2025.
26. TechSci Research LLC, "Middle East Construction Market By Type (Building Construction, Heavy &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Others), By End User (Private, Public), By Sector (Commercial, Resident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By Construction Type (New Construction, Repair & Maintenance), By Country, Competition, Forecast and Opportunities, 2020-2030F," May 2025.
27. Mordor Intelligence, "Egypt Construction Market Size & Share Analysis – Growth Trends & Forecasts (2025 – 2023)," May 2025.
28. Global Data, "Algeria Construction Market Size, Trends, and Forecasts by Sector - Commerc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Energy and Utilities, Institutional and Residential Market Analysis to 2029 (H1 2025)," March 2025.
29.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July 2023.
30.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 LTD, "2022 Annual Report," June 2022.
31.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LTD, "AI official Facebook video," May 2025.
32.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LTD,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sets up a new company!," March 2025.
33. Amber Jackson, "VINCI & Exodigo Transform Underground Mapping with AI," Construction Digital, June 2023.
34. Matthew Thibault, "Meet Sidekick, Skanska's new AI chatbot," Construction Dive, March 2024.
35. Acciona, "Innovation I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January 2025.
36. Business Wire, "PulteGroup Pilots Innovative New Construction Process," February 2025.
37. LEN X LLC, "About LEN X," January 2021.
38. Daiwa House, "Be a Pioneer in the Design Revolution," 2020.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산업재 및 건설업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산업 전문가들은 건설 산업에 속한 기업에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인사이트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이들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부동산 업황 침체 속 사업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의 문제 해결 방안 및 실행 전략 수립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현 파트너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3015

@ donghyuhan@deloitte.com



최지훈 파트너

산업재 및 건설업 리더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508

@ jihchoi@deloitte.com



김현근 이사

산업재 및 건설업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3203

@ hyungkukim@deloitte.com



김현준 Senior Manager

산업재 및 건설업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584

@ hyunjoonkim@deloitte.com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김선미 Senior Manager
seonmi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